



핵심 역량을 총집결하여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대림산업(주)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 아침이 밝았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대림산업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와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있다.

또한 지난 70여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과 '연구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핵심 역량을 총결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초우량 건설 기업으로 크게 우뚝 나갈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고유가와 원화 강세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시설 투자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였고, 특히 건설 산업은 건설투자의 위축과 발주 감소 그리고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림산

업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 미래 창조 ● 인간 존중 ● 고객 신뢰를 경영 원칙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완벽한 원자력 시공 능력 확보

대림산업은 2002년 본격 상업 가동에 들어간 영광 원자력 5,6호기 공사를 시작으로 원자력 후발 업체로 참여하였지만 그 동안 플랜트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원자력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준공과 더불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신고리 1,2호기는 영광 5,6호기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 대비 약 1.5개월 단축하였

으며, 더욱 분발하여 시공 전 과정의 완벽한 품질과 목표 공기 단축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리 원전 소내 정전 대처 설비 신축 공사'를 2006년 11월에 완벽하게 준공하였다.

이는 원전의 소내/외 교류 전원 및 비상 디젤 발전기가 동시에 상실되는 소내 정전(SBO : Station Blackout) 발생시 원자로를 안전 정지시키기 위한 대체 교류 전원(AAC) 디젤 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영광 원전 건설 초기에 미국의 S&L(Sargent & Lundy)사로부터 프로젝트 관리 / 건설 관리 /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술들을 축적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신고리 1,2호기에서도 적용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인력 면에서도 영광 5,6호기 현



장에서 주로 발로 뛰었던 대립의 젊은 직원들이 이제는 각자가 열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여 신고리 1,2호기에 투입되고 있으며 성실과 책임 시공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신형경수로(APR 1400) 사업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원전 사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APR 1400 노형을 최초 적용하는 프로젝트로,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범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우리기술에 의해 추진되고 우리 손에 의해 건설된다는 것은 관련 업계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수주 여부를 떠나 사업 성공을 위해 업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응집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사업이라 생각한다.

대림컨소시엄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 우선의 시공과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신뢰성 높은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당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동 공급체의 장점과 역량을 결집하는 효율적 컨소시엄 운영으로 핵심 기술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공적인 원전 공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당사는 선형 호기 원전 시공을 주도해온 분야별 핵심 기술 인력과 NSSS 설치 등 원전 핵심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원전 시공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고리원전 소내 정전 대처 설비

경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림컨소시엄은 공사 수행에 대비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지난 19년간에 걸친 국가적 숙원 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투표로 결정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처분 시설은 2009년 12월에 준공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대림산업은 국가적 현안 사업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제때에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스웨덴과 핀란드의 동굴 처분 방식 처리에 대한 기술 요건 등을 수집하여 검토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공사 수행에 대비하여 최상의 품질과 완벽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자료 축적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해외 원전 시장 진출 준비

세계적인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의 설립자인 패트릭 무어도 원자력 사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등



신고리 건설 현장

세계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2의 원자력 부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원 확보 경쟁, 고유가, 온실 가스 배출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이 그 동안 쌓아온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중국, 인도 등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고, 원전이 없던 폴란드마저 신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체코, 슬로바키아는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다.

대림산업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차세대 리더로서 향후 한국의 원전 기술 해외 진출시 국제적으로 건설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상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 시발점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서 작년 5월과 10월에 개최한 「베트남 국제 원자력 전람회」와 「한·베 원자력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원자력 사업 전문 인력을 확보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체계를 설립하고 학습 조직을 구축하여 지식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개개인의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맺음말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곧 대림의 역사라고 할 만큼 국가 건설 산업의 부동의 리더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 집약적 종합 건설 능력이 요구되는 원자력 사업에서도 차세대 리더로서의 실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원자력계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림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 할 것이다.

대림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초우량 건설기업으로 거듭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속의 종합 건설 회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